**Bobcat** 

뉴스홈 | 최신기사

# -올림픽-≪테니스> 나달, 랭킹 1위 축하 금메달

송고시간 | 2008-08-17 20:57











김동찬 기자

-올림픽~테니스> 나달, 랭킹 1위 축하 금메달

(베이징=연합뉴스) 특별취재단 = '왼손 천재' 라파엘 나달(2위.스페인)이 2008 베이징올림픽 테니스 남자단식 금메달 을 목에 걸었다.

나달은 17일 베이징 올림픽 그린테니스센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페르난도 곤살레스(15위.칠레)를 3-0(6-3 7-6↔ 6-3)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.



18일 발표되는 남자프로테니스(ATP) 랭킹에서 4년 넘게 계속된 로저 페더러(스위스)의 독주를 저지하게 되는 나달은 1위 등극을 자축하는 금메달을 따낸 셈이다.

2세트 게임스코어 5-6으로 뒤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15-40까 지 뒤져 위기를 맞았던 나달은 당황하지 않고 듀스까지 끌고 가 게임을 따냈고 타이브레이크에서는 7-2로 손쉽게 이겨 곤살레 스의 기를 꺾어놨다.

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 단복식을 석권했던 칠레는 정상을 지키지 못했다.

여자단식에서는 모든 메달을 러시아가 휩쓸었다. 러시아 선수들 끼리 벌인 결승에서는 엘레나 데멘티에바(7위)가 디나라 사피나 (6위)에 2-1(3-6 7-5 6-3) 역전승을 거뒀고 3-4위전에서는 베라 즈보나레바(11위)가 리나(42위.중국)를 2-0(6-0 7-5)으 로 완파하고 동메달을 차지했다.

여자복식에서는 비너스-서리나 윌리엄스(미국) 자매가 버지니아 루아노 파스쿠알-애너벨 메디나 개리거스(스페인) 조 를 2-0(6-2 6-0)으로 가볍게 따돌려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정상을 탈환했다.

이날로 끝난 테니스에서는 스페인, 스위스, 러시아, 미국이 금메달 1개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.

emailid@yna.co.kr



-올림픽-<테니스> 데멘티에바 · 사피나, 결승 맞대결

<올림픽> 테니스 조코비치 "관중석 매너 문제 있다"

<올림픽> 후진타오 '올림픽 정치'..대중에 친근감 과시

-올림픽-<테니스> 페더러, 남자복식에서 금메달

###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08/17 20:57 송고





















#### 핫뉴스 →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다섯식구 평균키 203cm...美 가족 '최장신' 기네스북 등재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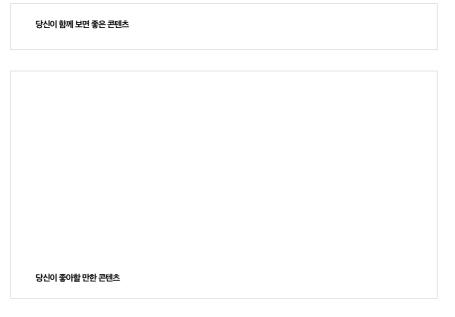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범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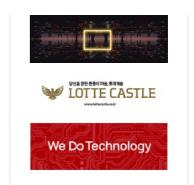
# 현장 영상 →

**▶** 01:18 **▶** 02:22

[영상]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시포·수송췔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

[영정] 독시포·구·동일기·영갑자...夫, 까덨된 두기를 결국 우크라에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원 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• 영상

▶ 02:22

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 크라에

● 뉴스

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...다음주부터 인원 ·시간 제한없다

尹당선인 "물가상승 장기화 대비...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 소화"

안철수 "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일 있었지 만...임기 끝까지 최선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尹측 "정호영 '아빠 찬스' 논란, 국회 검증 의 시간 지켜볼 생각"



## 댓글 많은 뉴스



**2**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ഈ 67 안 맞아"(종합)

**3** 두문불출이재명,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활 ☞ 56 동재개 예열?

**4**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( ) 41 회 예정"

5 [팩트체크]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안을 검 ② 29 찰이 혐의 밝혀냈다? 유튜브채널 연압...













sns f





####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**비주얼뉴스**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**테미별뉴스**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<del>뉴스+</del>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.톱뉴스사설 이시각.헤드라인 **광고** KTX.열차 AREX.공항철도 모비일 PC/홈페이지 출판물

**모바일 뉴스** 모바일웹 모바일웹 보다시진 이미지 그래픽 통영상 인물

**외국어** English 中文 日本語 고 도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 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Yonhapne